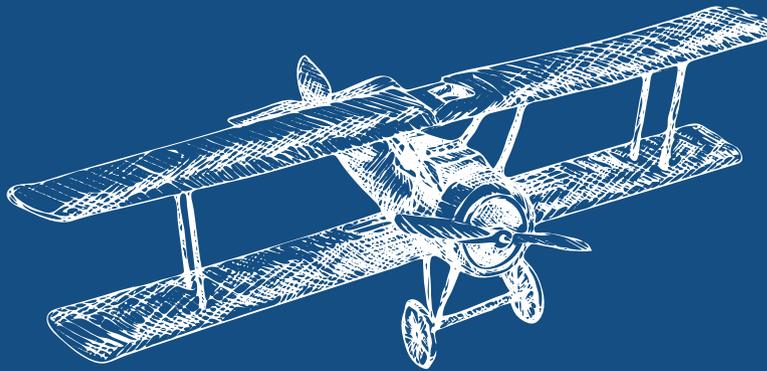


# 인류의 추락과 비상, 비행기

글 이영경



20세기가 막 열리는 1900년, 프랑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44년이라는 짧고 굵은 생을 살았던, 비행을 사랑했던 조종사가 있다. 그가 비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꿈 그리고 고독은 소설이 되었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다. “왜 내가 전투기에 몸을 싣고 순정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말했던 이는 ‘야간비행’, ‘어린왕자’로 잘 알려진 생텍쥐페리다. 비행기야말로 그의 문학처럼 인간의 환상에서 비롯된 발명품이다.



### 태양을 향해 날아올랐던 인류의 꿈

하늘을 날고 싶었던 인간의 꿈은 그리스신화 이카로스의 이야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왕의 노여움을 산 아테네의 건축가이자 발명가 다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미궁에 갇혔다. 탈출을 위해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을 모아 실로 묶고 밀랍으로 이어 붙여 새의 날개와 흡사하게 만들었다. 그는 첫 비행에 앞서 아들에게 당부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 열기에 깃이 타버릴 것이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에 깃이 젖어 무거워지므로 반드시 하늘과 바다 중간을 날아야 한다고. 그러나 이카로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난다는 생각뿐이었다. 태양을 향해 끝없이 날아올랐고, 결국 밀랍이 녹아내리면서 이카로스는 바다로 추락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이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후대 문학가들과 미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으며, 많은 작품으로도 남았다.

비행에 대한 기초 원리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역시 '모나리자'라는 걸작을 남긴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는 16세기 초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새가 자기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기의 밀도 층 위에서는 자연스레 뜨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인간이 기계적인 날개를 퍼덕임으로써 무게를 받쳐주면 하늘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물론 다빈치의 이론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주장했던 원리는 후에 미국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기 탄생의 기반이 되었다.

### 사람을 태우고 비행한 최초의 열기구

비행기는 아니지만 인간이 실제로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게 된 것은 18세기 말경이었다. 종이사업 집안의 형제 조셉과 자크는 종이봉투에 불을 쬐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에 착안하여 열기구 개발을 시작, 1783년 6월 종이와 베로 거대한 기구를 만들었다. 1783년 11월 21일, 직접 탑승하겠다고 지원한 26세의 젊은 의사 드 로지에와 육군장교인 다를랑드를 태운 열기구는 약 500m 높이로 9km를 25분 정도 비행했다. 세계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비행을 한 셈이다.

같은 해 12월,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은 수십만 파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만든 수소기구를 직접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무사히 착륙하는 일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1785년 6월, 최초의 비행 사고가 발생한다. 샤를의 수소기구가 도버해협 횡단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자극을 받은 몽골피에 형제가 자신들의 열기구로 도버해협을 횡단할 계획을 세웠고, 수소기구와 열기구를 합한 합체기구를 제작했다. 기구에 탄 사람은 최초의 유인 비행에 성공했던 드 로지에를 포함한 두 사람이었는데, 기구에 불이 붙어 폭발함으로써 해안가에 추락해 즉사하고 말았다.



### 동력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

1903년 12월 17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인간이 동력에 의한 비행에 성공을 거두는, 당시로서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항공기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라이트 형제다. 미국 해안 모래 언덕에서 동생 오빌이 먼저 12초 동안 36.5m를 비행한 후, 형 윌버가 59초 동안 259m를 비행했다. '라이트 플라이어-1'로 명명된 이 비행기의 초기 속도는 시속 43km였다. 1호기는 4번째 비행 후 추락했으며, 2호기는 80회를 비행했다. 라이트 형제가 개발·제작한 비행기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플라이어 3호는 30분동안 38km를 비행했으며 비행 시마다 30분 이상을 날았다. 이로써 새처럼 날고자 하는 인류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이 의미 있는 것은 유인비행, 동력비행,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체, 지속적 비행 조정 등과 같이 오늘날의 비행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트 형제는 1909년 회사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비행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 비행기 제조공장은 미국을 넘어 프랑스, 독일, 영국 등지에 잇달아 설립되었다.





### 인간의 환상과 전쟁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비행기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고속 엔진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제트 엔진은 장거리 공중 운송수단으로, 로켓 엔진은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의 발사체로 사용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간의 꿈이 세계전쟁에 이르러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다. 독일은 막대한 양의 전투기를 생산해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일본의 전투기 '제로기'는 미국 전투기를 압도하며 진주만 기습에서 활약해 태평양 전쟁의 악몽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비행기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오늘날, 콩코드(Concorde)의 부활이 이야기되고 있다. 콩코드는 1968년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든 초음속 여객기다. 3시간 40분 만에 영국에서 뉴욕까지 비행했지만 표가 너무 비쌌고 연료 소비율도 엄청나 첫 운항이 시작되고 27년 후 운항이 중단됐다. 이제 그 콩코드의 후예들이 다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초고속 비행이 가능한 극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착수했으며, 2030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료 소모율, 대기 오염, 티켓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서울에서 LA까지 단 50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곧 도래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금세 갈 수 있는 세상, 과연 축복일까 불행일까. 🤖